

가격 올리는 농산물 과대포장 사라진다

민·관·재계가 내년 설부터 농산물의 과대포장을 없애기 위해 힘을 모으면서 명절이면 가격이 급등했던 선물용 과일세트는 보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제품생산 원가 절감, 소비자들의 저렴한 소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한국연론진흥재단에서 농림수산물부, 생산자단체, 백화점 및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농산물 포장 간소화 및 친환경 포장재 사용 ▲농산물 포장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준수 ▲피치 등 불필요한 부속포장재 감축 ▲포장재의 압축강도 및 컬러인쇄 줄이기 ▲포장재 회수·재사용하기 등이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환경부, 농림수산물부는 과대포장 농산물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정책 추진을 돕게 된다.

이번 협약은 정부,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생산자가 공동으로 농산물 포장비용 절감과 외관을 중시하는 소비문화 개선에 포장쓰레기 발생량 및 비용 증가, 농민 일손부담 등 농산물 과대포장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설과 추석, 연말연시 등이면 농산물 선물세트의 유통량이 급증하면서 일부 유통업체의 과대 포장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필요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며 선물세트를 구입해야만 했다.

실제 지난 추석 기간 동안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주요 백화점 및 대형마트 9곳의 과일선물세트 포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85% 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식에서 유영숙 환경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서규용 농림부 장관,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욱 회장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 환경보호·비용절감 등 효과

포장용 골판지 400g 줄이면 年 종이 2만t·탄소 4130t 줄어

상이 피치·리본 등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일 선물세트의 절반 가량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포장횟수(2회)와 공간비율(25%) 규정을 초과하고 있었다. 배나 사과 등 농산물 포장에 사용되는 골판지상자도

필요 이상 두겹게 사용돼 심각한 자원낭비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협약은 내년 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피치 및 리본의 경우 재고량을 감안해 내년 추석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한 곡물류(쌀), 과일류(사과, 배), 육류(쇠고기), 수산물(굴비) 등

의 선물용 제품에도 적용된다.

특히 이 같은 시책은 환경·경제·사회적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배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포장간소화를 통해 연간 2만 톤 이상의 종이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흔히 사용되는 1.7kg 중량의 배 포장 골판지 상자를 1.3kg 상자로 변경할 경우, 탄소 발생량이 연간 4130톤(2008년 기준) 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 피치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박스당 1000~1500원의 포장비용이 줄어드는 등 환경보호, 일손감소, 비용절감, 생활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급식용 통조림 25개서 환경호르몬 검출

"사용 중지·인증제도 도입해야"

환경운동연합 등 17개 시민·교육·노동단체로 이뤄진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은 지난 19일 서울 신문로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 급식용 통조림 식품에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BPA)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지난 10~11월 초등학교 급식 재료로 자주 이용되는 통조림 제품 29개를 구입,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25개 제품(86%)에서 BPA를 검출했다고 이날 조사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29개 제품은 콩치 4종과 참치 3종, 햄 2종, 토마토케첩 2종, 스파게티 소스 2종, 기타 소스 3종, 오이 피클 3종, 옥수수 3종, 콩 4종, 과일 통조림 3종이다.

분석 결과 콩치 통조림 4종에서 BPA 농도가 kg당 157.73~281.08μg(마이크로그램)이 검출돼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참치 통조림에서는 14.04~77.00μg, 햄 2종에서는 8.80μg과 13.50μg, 스파게티 소스 2종에서는 6.40μg과 135.11μg이 각각 검출됐다. 골소스 2종과 돈가스 소스, 오이피클 2종에서는 BPA가 검출되지 않았다. 10세 어린이가 각 제품의 1회 제공량을 하루에 한 개씩만 섭취한다고 가정하면 BPA 0.001~0.797μg에 노출될 수 있다고 국민행동은 지적했다.

동물 연구 결과 BPA 일일 노출량별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0.0001μg의 경우 세포 신호 전달 경로가 변형되고 0.025μg는 유방 세포조직의 지속적 변화와 생식기관의 영구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동은 "통조림 제품에서 BPA가 용출된다는 것은 전부터 여러 실험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급식 재료로는 BPA 코팅이 된 통조림을 사용하지 말고 관련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日 수도권 주민, 방사능 우려로 채소구매 주저

일본 수도권 주민들이 방사성 물질 오염 문제 때문에 식품품 가운데 채소 구입을 가장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지지통신에 의하면 시장조사 회사인 '마케팅 리서치서비스'가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5%가 "방사성 물질의 오염에 신경이 쓰여 사지 않는 상품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구입을 꺼리는 상품(복수응답)으로

는 채소를 꼽은 응답자가 56%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가 48%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 주민들은 38%가 원전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福島) 등을 응원하기 위한 관측 매장에서 식품품을 산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있는 지역의 농산물을 시장에서 팔 경우 주저않고 구입한다는 응답은 33%였다. /연합뉴스

태양 에너지 전환율 2배로 높인다

유기질 플라스틱 반도체물질 이용

햇빛 속의 광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자 수를 2배로 늘리는 방법이 개발돼 장차 태양 에너지 전환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오스틴 소재 텍사스 주립대(UTA) 연구진은 유기질 플라스틱 반도체 물질을 이용하면 기존 태양전지의 효율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사이언스 지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들은 플라스틱 반도체 태양전지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하고 "막강한 잠재력을 가진 분자설계 및 종합 기술과 결합시키면 새로운 고효율 방식으로

태양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최대 효율은 이론상 약 31%이다. 이는 전지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이 사용가능한 전기로 전환하기에는 너무 높기 때문이다. '열(熱) 전자'의 형태로 도달하는 이런 에너지는 전기로 전환되지 못하고 열 쓰레기로 사라져 버린다. 이런 열전자를 포착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태양열에서 전력으로의 전환 효율을 최고 66%까지 높일 수 있다.

연구진은 앞서 지난해 연구에서 반도체 나노크리스탈을 사용해 이런 열전자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기술로 이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았다. /연합뉴스

브라질 아마존 대형 댐 건설공사 재개

연방법원, 공사 중단 명령 취소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지역에서 추진하는 대형 댐 건설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북부 파라 주 연방법원의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카스트로 마르틴스 판사는 전날 아마존 지역 싱구(Xingu) 강에서 이루어지는 벨로 몬테 댐 건설공사의 재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마르틴스 판사는 지난 9월 말 부두 건설, 폭발물 사용, 독 설치 등을 통해 강물의 자연적인 흐름과 원주민의 어로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벨로 몬테 댐 건설공사의 중단을 명령했었다.

브라질 정부는 110억 달러(약 12조7325

억원)를 들여 벨로 몬테 댐 건설을 추진해 왔다. 벨로 몬테 댐은 중국 찬샤 댐과 브라질-파라과이 국경에 있는 이타이푸 댐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로, 2015년부터 1만1천200MW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벨로 몬테 댐 건설공사를 놓고 아마존 원주민들은 강 하구에 있는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파괴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난 10월에는 수백 명의 원주민이 댐 건설 현장을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주기구(OAS) 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브라질 정부에 댐 건설 중단을 요구했고, 비정부기구(NGO)들도 아마존 환경 파괴와 원주민 생계 위협을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산골 오지마을서 겨울나기, 지구 아끼기'

광주환경운동연합, 12일부터 2박3일겨울캠프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내년 1월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 동안 진안 능길산 골짜기에서 '시계 밖에서 놀자 - 산골 오지마을에서 겨울나기, 지구 아끼기'라는 주제로 어린이 겨울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겨울캠프는 산골 오지마을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연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에너지 절약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놀이와 영화로 알아보는 에너지 이야기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나의 공방 ▲겨울놀이 만끽하기 ▲모닥불로 따끈따끈한 간식 만들어 먹자 등이 있다.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40명)으로, 참가비는 회원 12만원, 비회원은 13만원이다.

문의 062-514-247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매매

사업명	(주)해주주택전시관 및 사육신축공사		
사업장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5-1번지		
대지면적	2,411.20㎡(729.39평)		
용도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준주거지역		
건폐율	59.53%(법정: 60%)	용적율	478.73%(법정: 480%)
규모	지하0층 지상9층	최고높이	55.50m
건축면적	1,435.47㎡(434.23평)	건축연면적	11,543.18㎡(3,491.81평)
주차대수	80대(법정 72대): 본관 24대, 부설주차장 56대		
승용승강기	17인승(4대), 15인승(1대) 총 5대		
에스컬레이터	상, 하 전용왕복 에스컬레이터 시공: 1층~7층까지 설치		
용도	근린생활시설(금융, 소매점, 일반음식점), 문화집회시설 및 업무시설		

층별 면적 개요

층별	면적	평	층고	용도
1층	1,374.92	415.91	4.8m	근생, 업무시설, 기계실
2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3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5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계	11,543.18	3,491.81		

장부가격(감정가)	14,000,000,000원
매매예정가격	12,000,000,000원
현공정율	약 85% 진행
적용가능용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워터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시설 병원 등 최대층고가 7.5m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설군, 용도군 도입가능 함

문의처 : 010-3625-6984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적합) 광산구비아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 기타용도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자동차 확인인근, 28.845㎡(8,726평) 대지 약48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원
- ▶ 준주거지역 (병원, 사육,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화정동, 광산간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 풍암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13억5천만원
-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스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1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 ▶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8억

<급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 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빌딩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